복지사회를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찬 윤성태 의료보험연합회장

우리가 꿈꾸는 복락(福樂 Well-being)을 향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어제도 매진해 왔고 또 내일도 그렇게 매진하기 위해 오늘을 더욱 열심히 사는 윤성태(尹成泰) 의료보험연합회장.

그는, 복지는 사회의 어느 한 부문만의 발전으로 일궈지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에서, 강산이 세 번이나 변한다는 30여년의 세월을 노동·환경·보사 등 온갖 부문에 걸쳐 열정과 부지런함으로 봉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가 1965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66년 고시행정과에 합격(행시 4회)하여 이듬해부터 공직에 발들여 놓은 후 우리 나라 복지부문 봉사자로서의 삶을 소명으로 오직 한길을 걸어 온 것은 그의 이력에도 잘 나타나 있다.

법제처·보사부·노동청 근무를 거쳐 대통령 비서관(보사·환경·노동 담당), 보사부 기획관리실장과 차관,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 등 복지사회와 관련된 직책을 두루 역임했고, 120여개국에 걸친 사회보장기관들의 국제기구인 국제사회보장협회(ISSA)에 한국을 대표한 운영위원이자 아시아권을 대표한 최고 집행위원으로서 국제적 비중 또한 큰 사람이 바로 윤성태 회장이다.

그동안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을 천직으로 삼아 왔던 그였기에 항상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평이다. 온 몸엔 신앙의 힘을, 얼굴엔 원만함과 성실함을 가득 담고 오늘도 국민건강 증진과 사회보장 정착을 위한 의료보험일에 열정과 감사의 마음으로 임하는 윤성태 회장을 만나, 우리 나라 의료보험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리하고 유익한 국민생활 속의 의료보험

▶ 우리 나라 의료보험의 발자취와 현재는 어떠합니까?

1996년에 우리 국민소득이 만$을 넘어섰지만, 70년대 중반에는 천$에 불과했고 시대적으로 모두가

어려웠던 때지요. 당시는 전국민의 역량이 경제개발에 결집되었었고, 더불어서 한단계 높은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사회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요건인 의식주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병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때가 또한 그때였습니다. 따라서 의료에 대한 욕구(Needs)를 해결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977년 7월 1일 대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직장의료보험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단계적인 적용 확대 과정을 거쳐 1989년 7월 1일 마침내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열었습니다.

12년만의 전국민 의료보장시대 개막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쾌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의료보험 발전 모델은 국제경제조사협회(NERA)나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성공적인 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보험급여 수준이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있어서, 이제는 '편리하고 유익한 국민생활 속의 의료보험'이자 복지제도의 중추제도로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모두 의료보장제도에 의한 혜택을 받고 있고, 보험료 부담은 세계적으로 최저 수준에 가까우며, 주민 가까이에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의료보험조합입니다.

보다 질 높은 서비스 지향

▶ 앞으로 의료보험을 어느 방향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실 계획이신지요?

사회보장제도의 양대 지향점인 적용범위의 확대는 이미 이루어진 만큼 보험급여 서비스의 향상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사업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또 급여 서비스의 향상은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한 만큼 보험 재정의 안정도 필요할 것 입니다.

그리고 '민주적 시장 경제체제의 발전'이라는 새정부의 이념이나 경쟁과 효율의 추구라는 세계사적 흐름에도 부합되는 방향으로 의료보험이 관리·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디든 봉사하는 자리는 가치가 있다

▶ 윤회장님과 연합회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셨는지요?

"오다 가다 길에서 만난 이라고 그냥 보고 그대로 갈 줄 아는가"라고 읊조린 시인이 있지요. 불가에서는 세상에 인연없는 일은 없다는 연기설이 있습니다.

제가 70년대 중엽 의료보험제도 도입을 입안하고 고민할 때만 해도 연합회장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국무총리 행조실장을 마치고 이 자리에 와 있으니 인연이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의 어느 부문이든 봉사하는 자리는 모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민 의보제도 정착 과정, 가장 기억에 남아

▶ 우리 나라 의보사업 추진 중에서 가장 의의있고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

선인들께선 풀 한 포기, 벌레 한 마리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의료보험사업은 국민의 일상에 직결되는 것이니 만큼 모두가 의의있고, 하루하루를 반성 속에서 살다보니 모든 일이 기억에 생생합니다.

굳이 꼽으라면 의료보험 제도 도입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기업이나 병원계에서 이해하고 협조해 주셔서 이 땅에 의료보험제도의 씨를 뿌린 것과,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를 이른 시일 내에 정착시키는데 보내준 국민의 성원이 큰 감명으로 남습니다.

진료비 부당 청구 방지, 제도적 장치보다는 의약인 양심이 우선되어야

▶ 최근 병원진료비 부당 청구 사례가 TV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없을까요?

진료비 부당 청구는, 모르고 과다 청구한 경우와 알면서도 자기 이익을 위해 고의로 허위 청구하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의사선생님들은 인술을 펼치시는 분들이므로, 부당 청구의 대부분은 모르고 과다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의약단체나 연합회에서 올바른 청구방법을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드물기는 하지만 고의·허위 청구의 경우는 범죄행위로서, 정의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고 처벌하는 법규는 현행 제도에 갖추어져 있다고 봅니다.

제도가 문제해결에 유효한 수단이긴 하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술 방망이는 아닙니다. 이미 갖추어져 있는 제도는 원칙대

로 운영하되, 양심과 자기 이익 추구라는 잣대에서 양심에 터 잡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시일은 다소 걸릴지라도 의·약인의 양심적 진료비 청구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로서 국민 권익도 보호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자체·보건단체 고유 역할에 최선, 국민건강증진 위해 꼭 필요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 증진기금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데,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국민건강은 곧 국력의 기초입니다. 건강에 대해 무심한 사람은 없으므로 건강증진에 대한 국민의 성원이나 관심은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잘 다듬고 있으므로 정부를 신뢰합니다.

그 실천에 있어서는 지방정부, 국민건강에 헌신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등 건강관련 단체, 그리고 건강 향상을 목적으로 한 의료보험조합, 보건의료서비스를 펼치는 의약계 등 모든 당사자들이 정부 정책에 따라 능동적으로 고유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 각 이해 당사자들은 이해와 조정으로 '신뢰의 자산'을 쌓아야 비용 대비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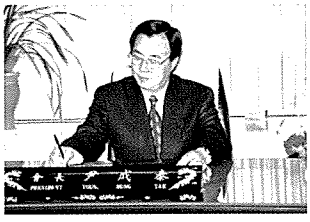
규칙적 생활이 최고의 건강관리법

▶ IMF시대의 효과적인 건강관리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희장님의 건강관리법은?

IMF 시대든 아니든 건강의 중요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 건강관리법도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운동하기, 골고루 먹기, 규칙적인 생활과 정신적 평안이 건강관리의 요체라고 봅니다.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배워, 골고루 먹기나 규칙적인 생활을 평생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돈이 덜드는 운동이 최고라고 보고, 저나 가족은 산을 자주 찾습니다. 본격적인 등산가는 아니지만 가까운 산을 즐겨 가는 편이지요.

또 정신적 평안은 신앙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 66년 고시행정과 합격 (행시 4회)
▷ 67년 법제처·보건사회부 근무
▷ 76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보사담당)
▷ 79년 노동청 훈련지도관 (부이사관)
▷ 80년 보건사회부 사회보험국장
▷ 81년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 (보사·환경·노동 담당)
▷ 86년 보건사회부 기획관리실장
▷ 89년 보건사회부 차관
▷ 92년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
▷ 93년 의료보험연합회장(현)
▷ 93년 국제사회보장협회 (ISSA) 최고집행위원(현)

▷ 보국훈장 천수장(1980), 황조조정훈장(1994) 등 수상

지지난 해에 큰 병을 얻었는데, 주치의께서도 깜짝 놀랄 정도로 빨리 회복되어 몇 달만에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지금까지의 건강관리의 덕이지요. 주위에 계신 분들의 격려도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병원비 계산할 때 의료보험제도의 고마움을 실감했지요.(웃음)

'진인사대천명'을 신념으로

▶ 평생의 좌우명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 자신에게 엄격하고, 언제나 부지런하고 성실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좌우명을 꼭 집어 정하지는 않았지만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 좌우명으로 굳어지더군요.

▶ 끝으로 국민에게 바라고 싶은 점이 있으시다면 이 기회에 말씀하시지요.

우리 나라 의료보험제도가 국제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을 정도로 이만큼 발전한 것은 우리 국민의 성원과 열망의 덕분이므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다 성숙·발전된 의료보험이 되도록 우리 연합회나 조합이 정성을 다해 매진할 터이므로, 국민들께서도 의료보험을 더욱 아껴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IMF체제이므로 이 어려운 시기를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를 믿고 온 국민이 하나되어 스스로 주인의식을 지니고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야 겠습니다.